



선수협 박총식 사무총장(왼쪽 끝)과 박재홍 회장(가운데 앉은 사람)이 6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12차 선수협 정기총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의결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트위터 @bluemarine007

■ 선수협, 10구단 승인 압박…KBO·구단들 반응은?

KBO “이사회 일정 잡겠다”

골든글러브 시상식 당일이나 13일 개최 검토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사상 첫 파행 위기에 처한 가운데,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BO 양해영 사무총장은 6일 “골든글러브 시상식 전까지 어떻게 해서든 이사회를 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가 11일 골든글러브 시상식 전에 ‘이사회 개최+10구단 창단 승인’을 요구함에 따라 최대한 시상식 파행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KBO는 각 구단 사장들의 일정을 고려해 골든글러브 당일인 11일과 직후인 13일, 두 날짜를 놓고 이사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3일 이사회가 개최된다면, 특별한 돌파구가 발생하지 않는 한 11일 골든글러브 시상식은 파행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11일 이사회가 열릴 경우다. 대개 이사회는 오전 9시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열리는데, 11일은 골든글러브 시상식 당일이라 이사회 결과에 따라 선수들의 시상식 참가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KBO의 한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선 (선수협의 보이콧 여부와 상관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골든글러브 행사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BO의 다른 관계자와 A구단 단장은 “만약 선수들이 자신들의 축제행사인 골든글러브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굳이 수상자가 오지도 않는 데 시상 내역을 발표하거나 골든글러브를 수상자에게 전달할 이유도 없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삼성 송삼훈 단장은 강경 일본도로 나오고 있는 선수협에 대해 “선수과 구단, KBO는 다 동반자 관계 아니냐. 극단적 방법보다는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시간적으로 몹시 촉박한 상황에서 선수협이 강경 일본도로 사태를 파국으로만 몰아가지 않는다는 우리의 목소리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트위터 @kimdohoney

단체행동에 선수 400여명 동의

▶ 1면에서 이어집니다

골든글러브 시상식까지 남은 기간은 단 5일뿐. 서로 입장이 다른 9개 구단 사장단이 하루아침에 뜻을 모으지 않는 이상, 골든글러브 시상식 개최가 어려워졌다. 시상식 보이콧과 향후 단체행동에 대해서 총회에 참석한 9개 구단 400여명의 선수들이 대부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총식 사무총장 “10구단, 늦어도 2015년에 1군 진입해야”

선수협은 6월에도 10구단 창단을 촉구하면서 ‘울스타 전 보이콧’이라는 강경책을 들고 나왔다. 당시 KBO 이사회가 “한국시리즈가 끝난 후 재논의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울스타전은 정상 개최됐다. 따라서 선수협은 10구단 창단 논의에 대한 사정단의 미온적 태도를 ‘약속 파기’로 간주하고 있다. 박재홍 회장은 “이사회가 12월내에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모일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창단을 희망하는 지역과 기업이 나타났는데도 결정을 망설이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이미 9구단 체제의 내년 시즌 일정이 공개된 뒤 여러 구단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박총식 사무총장 역시 “합리적인 해결을 바라고 있다”며 “울스타전 전에는 10구단의 2014년 1군 진입을 원했지만, 창단에 필요한 과정을 고려하면 이제는 늦어도 2015년에는 10구단이 1군에서 뛰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트위터 @mkh2357

“데드라인 넘길 땐 초강경 후속타 준비”

〈10구단 창단 승인〉

선수협이 숨겨둔 추가 대응책은?

내년 1월 15일 전후 1차 기한 못 박아
전환 거부·WBC 불참 카드 등 만지작
최악의 경우엔 내년 시즌 파업도 염두

제10구단 창단을 희망하는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와 한국야구위원회(KBO), 각 구단의 협력투기는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 1차적으로는 골든글러브 시상식(11일 오후 4시30분 예정)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최악의 경우 시즌 파업까지 각오하고 있을 정도로 선수들은 강경했다.

9개 팀 400여명의 선수들은 6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 모여 선수협 총회를 열고 5일 앞으로 다가온 골든글러브 시상식 보이콧뿐 아니라 내년 1월 이후 대응책에 대해서도 협의를 마쳤다. 박재홍 선수협회장은 “비활동기간이 끝나는 1월에도 10구단 창단 승인이 되지 않았을 때 추가 대응책에 대한 로드맵도 구단별로 상의해 전체 선수들의 뜻을 모아 결의를 다 했다”며 “솔직히 제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이전에 다 해결됐으면 하



9개 구단 선수들이 6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모여 제12차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정기총회를 열고 있다.

인천 | 김민성 기자

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선수협은 이날 협의한 추가 대응책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박총식 선수협 사무총장은 “KBO에도 추가 대응책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수협 총회는 10구단 창단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우선적으로 골든글러브 시상식을 보이콧하고, 비활동기간 비

공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단체훈련에도 불참하기로 결의했다. 사태는 내년 1월로 넘어가면 좀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구단별로 비활동기간의 종료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월 15일 전후다. 내년 시즌을 위한 전지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다. 게다가 내년에는 제3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도 열린다. 10구단 승

인이 늦어지면 선수협은 결국 2차적으로 전지훈련과 WBC 참가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한 선수는 의문을 전제로 “프로야구 선수는 당연히 내년 시즌을 위해 따뜻한 곳에서 전지훈련을 하기 바란다. 그러나 이번에는 모두 지금이 10구단 창단의 최적기라고 생각한다. 별다른 반대 목소리도 없다”고 귀띔했다.

비활동기간이 끝나면 구단은 선수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단체훈련을 통보할 수 있다. 따라서 전지훈련에 불참하면 급여 지급도 중단될 수 있다. 금전적·신체적 측면에서 모두 선수들은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그만큼 선수들은 강경하며 함께 뜻을 모으고 있는 상태다.

최악의 상황은 내년 2월까지지 10구단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다. 박총식 사무총장은 “우리의 목적은 파업이 아닌 10구단 창단”이라고 말했지만, 시즌 보이콧은 선수협이 꺼낼 수 있는 가장 마지막이자 강력한 카드다. 이날 총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인천 | 이정호 기자 rush@donga.com

트위터 @rushhkh

“늦어도 2015년 1군 참여” 선수협, 회유책도 동시에

기존 ‘2014년 참여’ 주장서 한발 양보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는 6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총회를 통해 한발 더 나아간 강경책으로 10구단 창단을 압박했다. 그러나 선수협은 동시에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일부 반대 구단들

에게 기존에 없던 퇴로도 열어줬다. 강경책과 더불어 한발을 살짝 비켜준 양동작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수협은 이날 기존 ‘10구단 창단 논의 위한 이사회 개최’ 촉구에서 ‘10구단 창단 승인’을 요구하며 골든글러브 시상식 불참 카드를 꺼냈다. 계속 10구단 창단 승인이 이뤄지면 비활동기간 단체훈련 보이콧을 덧붙이고, 여기에 공개하지 않았지만 구단들을 더 크게 압박할 수 있는 추가 대응책에 대한 합의까지 끝냈다. 그러면

서 선수협은 기존에 주장했던 ‘10구단의 2014년 1군 참여’에서 ‘늦어도 2015년에는 1군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으로 입장을 조금 바꿨다.

박재홍 선수협회장은 “벌써 2013년 시즌부터 롯데가 일정상 어려움을 겪는 등 시즌 일정에 문제가 많아지고 있다. (10구단 창단을) 원하는 기업도 있고, 후원하고 싶다는 도시도 있다. 당장 10구단이 내년 2군에 들어오고 2014년에 1군에 참여하는 것이 프로야구 전체를 위해서 좋다”

고 강조했다. 기존 입장과 큰 차이가 없는 목소리다.

그러나 박총식 선수협 사무총장은 따로 취재진과 만나 한 가지를 덧붙였다. 박 총장은 “선수협은 이전까지 공개적으로 10구단의 2014년 1군 참여가 최적이란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각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늦어도 2015년에는 1군에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생각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인천 | 이정호 기자

단장들 “내년 시즌 일정 편성 KBO에 일임”

실 팀-선 팀 대결 횟수 최우선 고려 합의
KBO, 일정 재조정 검토…“장담은 못해”

“일정 재조정을 검토해보겠다.”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2013년 정규시즌 경기일정이 새롭게 검토된다. 그러나 일정 재조정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1주일 정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9개 구단 단장모임인 실행위원회는 6일 오후 9차 회의를 열고 내년 경기일정 재작성 여부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9개 구단은 2013년도 일정을 포함해 2014년 이후의 경기일정 편성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KBO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실행위원회에는 KBO 양해영 사무총장과 정금조 운

영기획부장도 동석했다. 내년 시즌 일정이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KBO도 인정했다. 특히 롯데는 3연전 혹은 2연전을 선 팀과 무려 12차례나 맞붙게 되는 반면 삼성은 단 1차례밖에 없다는 점이 부각됐다.

그러나 어떠한 일정도 모든 구단을 만족시킬 수 없는 데다, 지금까지 발표한 일정을 수정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재조정 여부에 대해 찬반양론이 일었다. 결국 모든 구단은 KBO에 일정 편성과 관련해 일임했다. 다만 재조정을 할 경우엔 ‘실 팀’, ‘선 팀’과의 대결 횟수 균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롯데 배재후 단장은 “2013시즌 일정은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다는 데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 더 이상 일정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지만 KBO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정 재편성을 기대했다. KBO 정금조 운영부



9개 구단 단장들이 6일 2013년 정규시즌 경기일정을 새롭게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각 구단 단장들이 이날 열린 한 언론사 시상식에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다.

박화용 기자 inphoto@donga.com 트위터 @seven7sola

장은 “일단 일정 재조정에 대한 검토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정을 짜는 데 고려해야 할 요인만 해도 10가지가 넘기 때문에 약 1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현재로서는 내년 시즌 일정 재편성을 검토하겠지만 반드시 일정이 재편성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트위터 @keystonelee